



주한미군전우회(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한미동맹저널

# 한미동맹저널

ISSUE: 2024 - 1



KDVA의 선임 고문사병들은 2023년 11월 KDVA의 새로운 "CFC 선임 사병 포럼"에서 UNC/CFC/USFK CSM Jack Love와 그의 팀을 만났습니다.

[WWW.KDVA.VET](http://WWW.KDVA.VET)



가문의 영광, 5페이지



외교관 제임스 피어스, 9페이지



제82공수사단, 1969, 14페이지

## 목차

### 인사말

커티스 M. 스캐퍼로티 대장(예)  
주한미군전우회 회장/이사장  
제 14대 한미 연합사 총사령관..... 3

주한미군전우회 회원자격 ..... 4

### 참전용사/전우

가문의 영광  
휴버트 허(Hubert Huh) ..... 5

한국전쟁의 여성들  
케일리 웰치(Kaylie Welch)..... 8

외교관 제임스 피어스  
에이라 로젠히슬롭(Ara Rosenhyslop) ..... 9

역사 앞에서  
김성철(Kim Sungchil)..... 11

한국군 예비역과 한미동맹  
김희석 (Kim hui sok)..... 13

제82공수사단, 1969  
대니얼 맥팔린(Daniel McPharlin) ..... 14

JUSMAG-K에서의 복무  
정재성(Jae-sung Chung)..... 15

### 안보/전략

KF-21 보라매: 중국과 북한의 새로운 위협에  
대항하여 미국의 제공권 유지를 도울 성공 해법  
제임스 디 나폴리(James (Jay) Di Napoli) .. 16

바그너 그룹과 북한의 무기 판매  
로렌 데이비슨(Lauren Davidson)..... 18

한강의 기적  
에이라 로젠히슬롭(Ara Rosenhyslop) .... 20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방어  
홍수진(Sujin Hong) ..... 22



## 한미문화

한국에 복무하는 초급 장병들의  
관계 형성 돕기  
맷 더키(Matt Durkee MAMP) ..... 24

한국 식민지 시대의 한 독창적인 삶  
A.D트림블(A. D. Trimble)..... 26

후원 기관 안내..... 29

**편집장** : 스티브 리(Steve Lee) 대령(예)  
(주한미군전우회 운영이사)  
**부편집장** : 얼린 할러리스(Earlene Hollerith)  
(주한미군전우회 사업 및 지원부장)  
**그래픽 디자이너** : 에이미 피셔(Amy Fisher)  
(주한미군전우회 소셜미디어 매니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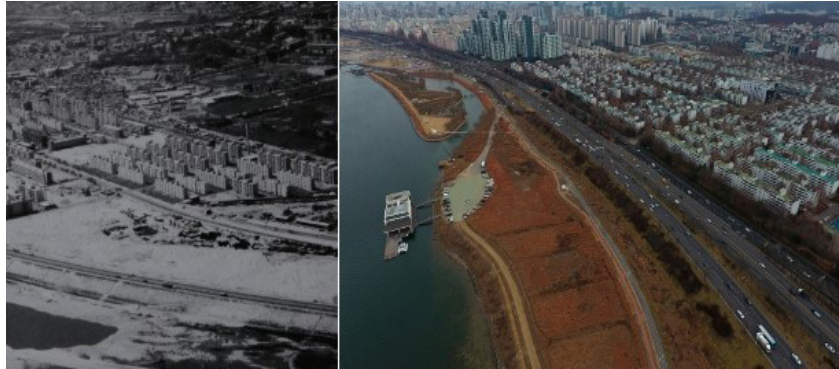
주한미군전우회는 본 저널에 기고하여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본  
저널에 게재된 기고문은 주한미군전우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번역/교정/감수  
최현지

번역  
최원석 권희령 김서윤 김은선 김희진 김현경  
서연희 윤주연 임세아 정설임 최조은



KF-21 보라매: 중국과 북한의 새로운 위협에 대항하여 미국의 제공권  
유지를 도울 성공 해법, 16페이지



한강의 기적, 20페이지

# 한국 식민지 시대의 한 독창적인 삶



한국 식민지 시대의 한 독창적인 삶, 26페이지



## 인사말



주한미군전우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전우회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모든 분들,

참전용사들을 지원하며 한미동맹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저희 주한미군전우회의 여정을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회원과 지지자들의 성원 속에서 유관 기관들과 각고의 노력을 다한 끝에, 주한미군전우회는 유례 없는 성장과 확장 of 시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회원의 수는 처음으로 1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SNS 팔로워의 수도 8만 명에 진입했습니다.

주한미군전우회는 한국, 하와이, 조지아 지부 차원에서 참전용사를 위한 가치 있는 프로그램을 여럿 운영해 왔으며, 전우회 차원에서도 한국 재방문 프로그램, 전우회 송년 행사, 기념 행사, 인턴십 프로그램, 웨비나 진행, 전우회와 회원들의 활동을 알리는 소식 게시 등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의 중심에 한미동맹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몰심양면으로 기여해 주신 회원님들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한미동맹이 양국의 국민으로 하여금 더욱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근간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전우회의 회원들과 지지자들이 어떻게 한미동맹에 저마다의 족적을 남길 수 있었는지 이 저널의 이야기들에 녹아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남겨 주신 치열한 삶의 흔적 속에, 한미동맹이 맺어진 이래 이토록 끈끈해지기까지의 고락을 함께해온 과정이 있습니다. 이번 저널에도 아낌없이 삶을 나누어 주신 자랑스러운 분들이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널에 실린 이야기들을 읽으며 어떤 인생을, 어떤 생각과 경험을 마주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떠오르신다면 부디 기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2024년 주한미군전우회는 또 한 번의 도약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미동맹재단의 중추적인 지원 속에서 나날이 번영하는 이 위대한 노력에 기탄없이 보탬이 되어 주십시오.

회원님들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스럽습니다.

### “한미동맹을 위해 함께”

커티스 M. 스캐퍼로티  
미 육군 대장(예)  
회장 및 이사장

# 주한미군전우회 회원자격



## 회원혜택

- 권위 있는 기관의 일원이라는 자부심
- 한미동맹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
- 한국에 근무하였던 장병 예우
- 한국 재방문 프로그램과 주한미군전우회 연례총회에 참석할 기회
-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킹할 수 있는 기회
- 멘토링 기회
- 한국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전우와 연락할 수 있는 기회
- 행사 및 포럼 참여 기회
- 중요 직책에 자원할 기회
- 인턴십 기회
- 기고문 출간 기회
- 사회봉사 기회

### 정규 회원

- 주한미군(USFK), 한미연합사령부(CFC), 혹은 주한미국대사관의 현역 및 예비역 미군과 국방부 직원
- 육군규정(AR) 600-8-22 표창규정 2-27, 2-22항('19.3.5)에서 명시한 바, 한국전쟁종군기장(KSM), 혹은 한국국방공훈장(KDSM) 요건을 충족하는 미군 및 국방부 직원
- 주한미육군지원한국군(KATUSA) 예비역
- 아래 기관 중 1곳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했거나 파견된 대한민국국군 소속 예비역 군인 혹은 은퇴 인원
  - 유엔군사령부(UNC)
  - 한미연합사령부(CFC) 및 그 예하기관
  - 기타 한미연합사령부
  -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기타 각군 본부
- 대한민국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한미연합사령부 및 주한미군 소속 한국정부 인원 및 근무 이력이 있는 한국정부 인원, 한미 동맹 강화에 헌신한 한측 및 미측 고위급인사

### 준회원

-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성인
- 한미동맹에 관심 있는 대학생

### 명예 회원

- 한미동맹 강화에 헌신한 주요인사
- 관계 부처에서 한미동맹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바 있는 전, 현직 한측 및 미측 정부 인사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여 주한  
미군전우회의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www.kdva.vet/join-kdva](http://www.kdva.vet/join-kdva)

# 가문의 영광

휴버트 허 (Hubert Huh)



제 아내와 두 아들이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벨 장군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중간에 있는 아들은 현재 미군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가문의 영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상을 받거나 어떤 일을 잘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았을 때 쓰는 말입니다. 제가 쓴 글이 한미동맹 저널에 실리게 된다면 정말 가문의 영광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에 사는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 독자가 저의 글을 읽는 것 또한 가문의 영광일 것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4월 초이지만 제가 살고 있는 유타주에는 여전히 함박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를 보니 좋았던 기억들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미국으로 건너와 미군이 되고, 조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일했던 경험을 적다 보니 지난 40여 년간의 시간이 영화처럼 흘러 지나갑니다. 저의 미군 생활은 지난 일곱 번의 만남으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미군 병사와의 첫 번째 만남: 초등학교 6학년, 지방에서 대구로 수학여행을 갔을 때 달성공원에서 미국인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 미국인은 군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아는 영어단어가 전혀 없었고 그 군인도 한국말을 몰라 서로 한마디도 주고받지 못했습니다. 미련은 남았었지만, 밝은 얼굴로 손을 흔들며 헤어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2. 미군 병사와의 두 번째 만남: 중학생 때는 대구로 전학을 갔었습니다. 하루는 형이 시간제 근무를 하던 대학병원에 갔었는데 미군 구급차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본 미군들에게 반해, 이번에는 꼭 말을 걸어보아야지 생각했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영어를 써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들과의 만남은 짧았었지만 그래도 그 여운은 오래도록 남아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휴대전화나 이메일이 없던 터라 서로 연락처도 나누지 못한 채 헤어진 것이 그렇게 아쉬웠었습니다.

3. 미군 병사와의 세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은 꽤 긴 이야기입니다. 13살 때 미군 병사를 처음 만난 후로부터 저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결심했었습니다. 그러고는 영어 공부를 정말로 열심히 했었습니다. 다른 과목 점수는 평균 이하였어도 영어만큼은 반에서 뿐만 아니라 전교에서도 항상 최고점을 받았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국에 갔을 때, 같은 고등학교에 다녔던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넌 수학 시간에도 영어 공부만 했었잖아. 영어가 사탕보다도 더 달다며." 정말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에는 매일 영어신문을 읽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영어는 정말로 재미있고 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제 시선을 잡아 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미군 차량과 한국 택시가 충돌해

길가에 서있던 장면이었습니다. 미군 병사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무작정 버스 기사님에게 사고 현장 근처에 내려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지정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내려주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지금까지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기사님은 제 간절한 요청과 사고에 연루된 미군을 돕겠다는 그 의지가 대견하다는 듯 바로 버스를 멈추고 내려주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사고 현장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운 좋게도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의 서투른 영어 덕분에 저는 제 능숙한(?) 영어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미군은 대구 캠프 워커에서 근무하는 헬기 조종사였는데, 그분을 통해 저는 난생처음 미군 부대에 가보기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토플(TOEFL, 외국어로서의 영어 시험)을 보고 캠프 헨리에 있는 메릴랜드 대학교 한국 분교에 입학했습니다. 물론 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조종사님과 당시 교육원에서 근무하시던 조종사님 아내 분의 공이 컸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미국인인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생각했고, 그분들은 저를 한국에서의 아들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친절과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미국에 온 뒤로 두 분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직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당시 헬기 조종사로 377 의무 중대(공중구급) 2소대 소속이었던 저의 '아버지'는 사호준사관장 제임스 서먼이었습니다.



AIT 수료식,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포트 잭슨에서



4. 미군 병사와의 네 번째 만남: 젊은 한국인이었던 저는 군 복무를 시작하기 전 캠프 헨리의 교육원에서 공부했습니다. 이때 로스앤젤레스에서 온 한국계 미국인 병사를 만났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 미군에 있어 정말로 신기했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형'이라 부르며 열심히 따라다녔고 그분도 저에게 맛있는 것을 많이 사주시곤 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의 계급은 상병이었고 성함은 김성지였습니다. 그분이 아주 많이 그립습니다.

5. 미군 병사와의 다섯 번째 만남: 1990년 어느 여름날, 저는 뉴욕 퀸스에 위치한 당시 재학 중이던 대학의 도서관에서 한국계 미국인 군 모집 담당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병장의 미군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 그리고 그 혜택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미군으로 이끈 것은 당시 미 육군의 모토였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라 (Be all you can be)'였습니다. 그날로부터 1992년 지원 입대 프로그램을 통해 현역으로 입대할 때까지 학교에 가거나 외출할 때마다 항상 그 모토가 적힌 가방을 메고 다녔습니다. 그 모토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분이 우울하거나 힘들 때마다 마법처럼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주변 청년들에게 이 모토 알려주기를 즐기곤 합니다.



1992년 34기 지원단, 부사관이었던 호지(Hodge) 하사와 함께

6. 미군 병사와의 여섯 번째 만남: 여섯 번째는 저 자신과의 만남입니다. 1972년 처음 미군을 만났을 때는 영어를 몰라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92년의 봄, 저는 미 육군 일병 계급장을 달고 고국인 대한민국 서울에서 군무를 시작했습니다. 저와의 만남은 미 육군과의 만남 중 가장 특별한 만남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에서 제대한 지 8년 만에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인 미국의 군인으로 복무하던 시간은 하루하루가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7. 미군 병사와의 일곱 번째 만남: 23년간의 현역 및 예비역 복무 기간 동안 한국과 미국에서 만났던 모든 군인, 부사관, 장교들과의 만남을 행운의 일곱 번째 만남으로 꼽고 싶습니다. 이들은 제 친구이자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저는 이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미군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있어 많은 축복이자 선물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대 후, 특히 지금 살고 있는 유타주에서 시의원으로서 출마했을 때 제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십시오! 같이 갑시다.



1993년 대한민국, 서울 용산에서



## 한국전쟁의 여성들



이 사진은 2013년 미군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단의 행사에서 찍은 것이다. 사진 속 다섯 명의 여성은 한국전쟁 참전 용사이다.

### 케일리 웰치(Kaylie Welch)

제2차 세계대전 중, 전쟁은 많은 사람과 기업에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미국 사회는 여러 변화를 겪었습니다. 1948년에 일어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이 여성군복무통합법을 법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이 법으로 인해 여성들은 공식적으로 군의 모든 부대에서 정규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은 이 법이 제정된 지 고작 2년 후에 발발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1950년에 미군의 한국 파병을 명령했으며, 그 중 약 22,000명은 여성이었습니다. 이 22,000명 중 7,000명은 보건 전문가였으며 나머지는 군대 내 여러 부대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한국전쟁이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지속되면서, 더 많은 현역 여성을 포함한 추가 인원이 한국에 파병되었습니다. 전쟁의 말미에는 120,000명의 현역 여성들이 참전하고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실제 전투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국전쟁의 여성들은 의료 인력으로서만이 아니라 군사경찰과 기술자로서도 새로운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여성들은 의료 인력으로서 실제 전투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었으며, 전쟁의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육군이동외과병원(이하 MASH)은 한국전쟁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해당 의료 부대와 의료진은 전투 부상을 몇 년 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비해 약 50% 가까이 줄인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전쟁에 현역으로 참전한 여성은 120,000명에 불과했지만, 고향에서 여성들은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가정을 유지하거나 노동인구에서 남성의 역할을 대신하는 등, 여성들은 한국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60년 후, 한국전쟁 기념행사에서 한국전쟁 참전 여성들은 각자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해당 여성들은 육군, 해병대, 해군, 그리고 공군으로 복무하였으며, 각자의 전쟁 경험의 기억을 하나씩 공유했습니다. 먼저, 캐시 드레이크는

1949년부터 육군 여군 간호단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녀는 기초 훈련 및 임관을 완료한 후, 1950년에는 8055 MASH 병원에서 수술실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패널 토론에서 그녀는 전투 지역 가까이에서 근무한 경험, 그리고 한겨울인데도 샤워실까지도 텐트였던 생활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발언자는 체력 훈련 프로그램에 지원해 텍사스에서 근무한 육군 참전 용사인 엘리너 포터였습니다. 엘리너는 텍사스에 주둔하면서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고, 현재는 미국절단장애인연합의 활동 회원으로서 현역 군인들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지 로사는 해병대 포스터에서 여성 신병 구인 항목을 보고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입대 후, 그녀는 해병대 병장이 되었고, 전쟁 중 보급 담당자로 근무했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애정어린 기억은 주위의 다른 여성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 근무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다른 이들과처럼 이 여성들도 한국전쟁 당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조국을 위해 근무하고 도움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군대 안팎에서의 이들의 노력이 현재 미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기여했습니다.

### 참고문헌

DeSimone, Danielle. "Over 200 Years of Service: The History of Women in the U.S. Military." United Service Organizations, February 28, 2023. <https://www.uso.org/stories/3005-over-200-years-of-service-the-history-of-women-in-the-us-military>.

Leipold, J.D. "Women Veterans Mark 60th Anniversary of Korean War." www.army.mil, April 2, 2013. [https://www.army.mil/article/75736/women\\_veterans\\_mark\\_60th\\_anniversary\\_of\\_korean\\_war](https://www.army.mil/article/75736/women_veterans_mark_60th_anniversary_of_korean_war).

"The Role of Women in the Korean War." Korean War Legacy, September 14, 2021. <https://koreanwarlegacy.org/chapters/the-role-of-women-in-the-korean-war/>.



Photo credit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이 사진은 1951년, 한국전쟁 도중에 찍은 것이다. 해당 사진에는 8225 육군이동외과병원의 의료진과 군 간호사들이 나와있다.

# 외교관 제임스 피어스



## 에이라 로젠히슬롭(Ara Rosenhyslop)

나는 워싱턴 D.C의 루터란 칼리지(Lutheran College) 학생들을 위한 세미나를 가던 중 짐(제임스 피어스)을 만났다. 은퇴한 외교관이자 동아시아에서 20년 넘는 경력을 가진 그를 만나 배움을 받을 수 있어 설렸다. 세미나는 현행 국제 정세에 대한 그룹 토론으로 시작됐고, 이후 짐의 삼국시대부터 냉전의 종료까지 다루는 한국사 발표로 넘어갔다. 그 후 짐은 일본, 한국, 북한에서 근무했던 그의 경험과 역사적 흐름을 연관 지었다. 짐과 다시 대화한 결과 냉전이 종료될 때까지 외교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국가인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그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미국 외교관으로서의 관점은 무엇이었는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다.

1969년 짐은 남한에 처음 방문했다. 그 해 초, 그는 북한의 공격에 대응하여 미국 군사정보를 강화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상위수준 기밀정보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들이 미국 기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의 주된 임무였다. 이는 주로 대화를 통해 후보자들이 자격을 통과했는지 확인하는 일상적인 조사였다. 한

번은 짐이 부대의 기밀정보 사용 허가를 신청한 남한 국가 공무원의 배경 조사를 하고 있었다. 조사 과정 중 후보자 직원의 동생이 북한에 있다는 것이 알려졌고, 짐은 즉시 추가 조사를 시행하여 그의 친구 및 가족과 만나게 됐다. 그리고 후보자의 동료들 사이에서 남동생이 실제로 북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이 여전히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퍼져 있음을 바로 알게 됐다. 이에 따라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실시되었고, 내용을 확인 후 후보자는 기지에서 즉시 해고되었다.

짐의 완벽한 일 처리로 상관들은 그가 업무를 잘 처리하는 한 걱정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후에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었으며 대다수의 군인들이 할 수 없었을 방식으로 그 나라와 사람들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한 번은 1970년 3월 짐의 휴가기간 동안 일본 항공기가 적군에 의해 납치되는 일이 있었다. 납치범들은 평양으로 착륙하라 지시했지만, 조종사는 그들을 속이고 서울에 착륙해 버린다. 하지만, 한글과 아래 쓰인 영문을 보고 속았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챈 납치범들은 대치를 시작했다. 몇몇 군인들과 짐은 공항으로 가서 상황을 살펴보라는



명령을 받았고, 차를 타고 나가 오후 9시경 도착했다. 이들은 비행기에서 100야드 떨어진 곳에 위치해 밤새도록 시간마다 보고했다. 이는 짐이 운이 좋아서 함께 할 수 있던 극히 드문 경험이었다. 교대 순환근무가 끝나 미국에 돌아가게 되었을 때, 짐은 동아시아에서 계속 일하고 싶은 그의 마음을 깨달았다.

짐은 아메리칸 대학교를 다녔고, 이 학교는 동부 해안에서 일본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세계 학교 중 하나였다. 짐은 D.C.에 있었던 덕에 아침에는 국무부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국무부는 짐이 1979년 처음으로 일본 대사관에 파견되면서 동아시아로 돌아가 1985년까지 일본 내 정치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했다. 이때, 대통령 순방 관련 업무를 조정하고,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이 외국 관료로서는 처음으로 일본 국회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계획하기까지 했다. 짐은 다시 D.C.로 돌아와 한국으로 가는 새로운 순환근무를 준비했다.

짐은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서울에 있었으며 정치 부참사관으로 일했다. 대사관과 미군, 국방부 및 대한민국 외교부 안보 부처 간의 주무 연락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제8군과 함께 일한 경험은 짐이 모든 관련 기관을 연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짐의 주 업무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미국과 대한민국의 입장을 조정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여러 차례 북한에 방문하기도 했다.

짐은 남북한 사이 전쟁 직전까지 갔던 일촉즉발의 상황을 여러 번 목격했다. 그중 한 번은 전투 작전 지원을 위한 물자를 이미 다 옮겨 놔 정도에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1994년 여름, 남북 간 긴장이 지나치게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 카터 전 대통령은 비공식 외교 노력의 하나로 북한을 방문했다. 이 긴장이 완화되지 않으면 전쟁으로 이어질 위기라고 판단해서였다.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도서관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해 일본을 자주 방문함에 따라 당시 짐은 이미 카터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다. 북한과의 장기적인 합의를 보장하기 위한 카터 대통령의 노력을 돕기 위해 짐은 해당 임무에 합류하게 되었다.

카터 대통령은 김일성 주석을 만나 미국과 동맹국의 물질적 지원을 대가로 북한이 원자로 가동을 중단한다는 합의를 끌어냈다. 합의된 큰 틀 안에서의 세부 사항들은 짐과 동료들이 맡았다. 짐은 북한 관리들과 만나 향후 평양 주재 미국 영사관 건립계획 등 여러 구체적인 사안들을 협의했다. 일정 중 짐은 기차를 타고 북한 전역을 여행할 수 있었고 그해 초 시작된 북한의 기근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카터 대통령이 북한을 떠날 준비를 하던 때 대통령은 김일성 주석에게 가능하다면 중국을 경유해서 가는 대신 휴전선을 넘어 서울로 바로 가도 되는지 물었다.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고 이에 짐은 난생처음 대통령과 함께 비무장지대를 넘어가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후 짐은 워싱턴으로 돌아와 밥 갈루치 국무부 정치 군사 담당 차관보와 핵무기 확산 방지 관련 일을 시작했다. 짐은 대한민국에서의 근무 경험이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팀에서 매우 중요한 구성원이었다. 짐의 팀은 한국에서 진행 중인 협상과 더불어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물질적 지원을 받는 대가로 핵무기를 만들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견고한 합의를 끌어냈다.

나는 짐에게 자신이 참여한 합의에서 어떤 점을 낙관적으로 생각하였는지 물었다. 1995년, 미국 영사관을 평양에 개관하는 데는 실패하였지만 짐은 합의가 이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짐은 영사관 개관이 빠진 합의 이행을 그냥 둔 것은 실수라고 생각했다. 합의 이행 초기에 문제가 있었는데, 북한이 합의국의 눈을 속여 첫 번째 연료유 수송을 합의 내용과 다르게, 공장으로 전용한 것이었다. 이 문제는 북한이 시설에 관리 감독 장비를 설치하는 데 동의하면서 해결되었다. 협정은 8년 동안 유지되었으나 북한이 플루토늄 대신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었으며 핵무기 또한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끝이 났다. 짐은 2003년 외무부에서 은퇴했지만 2010년 대통령 국민 방문을 돕는 특별 임무 담당으로 다시 부름을 받았다.

짐은 현재 자신의 견해와, 그 어떤 형태라도 잠재적인 통일을 위해서 노력했던 당시의 견해를 모두 공유했다. 짐은 독일 통일에 든 비용을 얘기하며 한국은 그런 투자를 할 만큼 통일에 대한 관심이 독일만큼 높지 않다는 점에 관해 이야기했다. 짐은 서울 첫 부임지에서 아내와 처음 만났는데 아내와 가족들에게 통일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관심이 있는지 물었을 때, 큰 관심이 없어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경향은 대한민국 전반에 걸쳐 널리 퍼져 있으며 남북 간의 경제적, 문화적 격차가 커지면서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짐은 특히 핵 확산과 관련하여 점점 더 군사화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또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동아시아의 다른 많은 국가가 이러한 추세에 편승할 것이며 이에 따라 잠재적으로 지역 전체에 긴장되고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음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마지막으로 짐은 주한 미군 전우회(KDVA)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짐은 처음 친구의 소개로 주한 미군 전우회와 인연을 맺었지만, 예편한 스티브 리 대령이 전우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전우회가 더 활발해진 이후에야 더 적극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 짐은 워싱턴 D.C. 인근 대학에서 열리는 회의와 세미나에 참석하였고, 몇 주 전에 루터란 대학교 세미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짐은 주한 미군 전우회(KDVA) 인턴십 프로그램을 위해 루터란 대학교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초대받자 주한 미군 전우회(KDVA)에 연락했다. 짐이 세미나에서 나눈 이야기는 업스테이트 뉴욕에서도 나눈 바 있던, 북한에 관한 이야기였다.

# 역사 앞에서

이하는 영국 출신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서평이다.



## 김성철(Kim Sungchil) 역사학 교수의 “역사 앞에서”

저는 한국전쟁에 영국군 소속 보병으로 참전한 이래, 한국인들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 평생 공감해왔습니다. 한국전쟁과 관련해 제가 읽은 책 중 그 끔찍한 시기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이 겪은 고통을 다룬 것은 이 책이 처음입니다. 이 책은 출판을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다정하고 세심한 한 사람이 가장 잔혹한 시기에 그가 목격한 것을 적은 기록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처음 쓰인 약 72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모든 국가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책은 비극이자, 공포 이야기이고, 배신의 이야기이자, 친구와 친구, 형제와 형제 간의 싸움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랑과 희망,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꿈꾸는 한 남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모든 전쟁 영웅이 최전방에서 싸우는 것은 아니며 모든 전쟁 영웅이 훈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 책은 정말 훌륭한 책입니다. 저자 김성철 교수에게, 그의 성찰과 따뜻한 이야기에 대해 ‘감사합니다’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 브라이언 휴 (전 한국 파견 제1국왕연대, 1952-53년)

하기의 글은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보 2023년 1월호의 한 기고문을 번역한 것이다. 일반 독자를 고려하여 약간 수정되었다.

## “역사 앞에서” 역사학자 김성철(Kim Sungchil) 저

70년 전에 쓰여진 일기가 지금까지도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면 믿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오래 되어 ‘잊혀진’ 한국 전쟁에 대한 이야기라면 말이다.

기록 문학 중 최고봉으로 손꼽히는 이 일기는 1993년 한국에서 처음 출판되었다. 출간 후 즉시 국내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저자는 서울대학교 역사학 교수이었고, 그의 아들 김기봉씨가 2021년에 영어로 번역하여 아마존에 출판하였다.

저자는 북한과 남한 사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고 들은 것을 정직하게 표현하고 묘사했다. 전쟁동안 혼란스럽고 반역적인 행동을 겪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가 느끼는 외로움은 굉장히 마음을 뭉클하게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변하지 않는 기록자로서의 의무감 또한 눈에 띈다.

일기는 격동의 시기에 국가의 비극과 한 개인의 경험을 묘사한 것으로, 종합적으로 전쟁을 설명하기엔 불충분할 수 있다. 허나



때때로 일기는 창이 되어 주요 사건을 더 생생하게 관찰하도록 도와준다. 일례로 ‘안네의 일기’를 통해 우리는 유대인을 학살하는 나치의 미치광이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다.

우선,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역사학자로서 저자가 양쪽 편향 없이 역사를 객관적으로 기록했다는 점이다. 어느 하나도 허술하게 기록하지 않아 사건들이 마치 바로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저자의 뛰어난 글쓰기 실력이 기여한 바도 크지만, 한번 이 책을 집으면 독자를 그 시대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책을 집필한 김성철은 누구인가. 그의 첫 책인 ‘조선역사’는 1946년 일본에서의 해방 후 5개월 만에 출판되었으며, 당시 매우 독특한 시기였음에도 20만부 이상을 판매한 ‘대히트작 작가’가 되었다. 그는 한국인에게 한국역사를 가르치는데 헌신적인 교육자였다.

비록 저자는 인민군의 침략에 대해 불안감을 느꼈지만, 그는 남쪽으로 대피하는 대신 가족들과 함께 서울 집에 머물렀다. 북한군의 통제 하에, 그는 이데올로기적 갈등의 어두운 면을 겪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다른 나라의 국민이 되었다. 더이상 대한민국이 아니다. 붉은 인공기를 흔들며 ‘만세’를 외치는 사람들이 서울 거리에 즐비했다. 그 중에는 바로 어제까지도 대한청년단 제복을 입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다.” 7월3일 일기는 슬프고 웃긴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우리는 붉은색과 파란색 잉크로 북한 인공기를 그려서 현관에 걸어 놓았다. 국기를 만들면서, 아내와 나는 무력하게 웃었다.”

저자는 인민군에 대한 첫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호의적으로 표현했다. 6월 28일 일기에는 “그들은 북서부 방언이 심했지만,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관습과 핏줄을 공유하는 우리 동포로 보였고, 그들이 적이 아니라고 느낄 수 밖에 없었다. 마치 오랜 시간 멀리 떠났던 형제가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땅에 엎드려 주먹으로 치며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고 싶었다. ‘형제여, 사랑하는 형제여, 우리가 왜 싸워야 하는가?’”

실제로 친형제가 접전을 벌인 적이 있다. 10월 일기에는 북으로 진격하던 한 남한군 병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전쟁 전면부에서 백병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적군에게 나이프를 쏘려던 차에, 그가 제 둘째형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형님!’이라고 외치며 나이프를 던져버리고 나서는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군에 대한 저자의 비교적 친근한 생각은 빠르게 사라졌다. 이는 사람들이 ‘인민재판’을 목격했을 때였다. “북한군 일부가 청년 뗏을 대중 앞으로 끌고 나와 그 청년들이 반동분자인지 물었다. 모두가 말하기를 두려워 했지만 대중 중 한 명이 그게 사실이라고 소리치자, 청년들은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죽었다. 군중 중 그 누구도 그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책에는 여러 무서운 이야기들을 서술하고 있다. 고등학생들을 강제로 인민군으로 총원 시키거나, 무작위로 사람들을 탄압하거나, 친한 친구를 배신하기도 하고, 기근이 발생하기도 했다. 9월 일기에서 일례를 찾아 볼 수 있다. “요즘과 다르게 대공화기를 격정할 필요가 없을 때였기에, 미국 비행기가 밤에 서울 상공을

날고 있었다. 이 때문에, 밤 시간대 지상의 불빛 통제가 매우 삼엄해졌다. 밤에 어떤 작은 불빛이라도 새어 나오면, 의용군이 들이닥쳐 범죄자를 쏘겠다고 위협했다. 하지만 옆집 유씨 가족이 계속해서 불을 켜고 누가 집에 들이닥치든 상관 없이 불을 끄지 않았다. 유씨네는 ‘솔 테면 썩 보라. 굶주림의 고통 속에서 죽어 가느니, 총 맞고 죽는게 낫겠다. 만약 폭탄이 떨어져 우리를 전멸시키면 더 좋고.’”

인천상륙작전과 9·28서울수복으로 새로운 국면에 맞닥뜨렸다. 남쪽으로 피난 갔던 사람들이 스스로를 ‘남쪽의 애국자’라 일컬었으며, 대피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공산주의 혹은 반역자 취급했다. 남한군에 대한 저자의 평가는 엇갈리고, 술에 취한 듯한 묘사가 많았다. 남한 정부의 부패에 대해서도 적잖이 실망했다.

중공군이 전쟁에 개입하면서 서울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일전에 이미 북한군의 통제를 겪었던 저자는 가족들과 함께 부산으로 피신했다.

저자는 대피 중에 맞닥뜨린 비극에 대해 이야기했다. 12월 일기에 보면, “한 여성이 열차 위에서 아이를 낳았다. 사람들이 바람을 막아주려고 담요를 펼쳐서 그들을 감쌌다. 허나 추운 겨울 날 달리는 열차 위의 추위는 얼마나 극심한가! 산모는 자신이 의식을 잃고 무너져 내리기 전에 아기를 집어 열차 아래로 던져버렸다.”

이런 비극과 고통들을 직접 보고, 저자는 절망하며 “우리나라는 이제 별레만 못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많은 젊고 지친 남성들이 군에 입대하기 위해 행진했고, 그들의 눈에서 새로운 활력이 보였다. 저자는 “우리나라의 희망을 보았다”고 말했다.

1951년 3월 일기에 보면, “비록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제일 후진국에 살며 열등한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훌륭하고 숨겨진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신체적 훌륭함과 뛰어난 지능은 충분히 입증되었다. 비록 우리의 현 상황이 몹시 안 좋고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절대 우리나라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나는 이를 강조하여 말한다. ‘우리는 우리의 현 상황이 아무리 견디기 힘들지라도, 미래를 향한 무한한 희망을 투영할 수 있다.’”

일기는 대략 이렇게 끝이 난다. 1951년 향년 38세로 저자는 폭력배에 의해 사망한다.

연세대 김호기 교수는 “전쟁은 우리에게 이념적 이분법을 강요해 잠재된 적대감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사고와 생명을 파괴한다. 이 책에 담긴 기억이 전달하는 사회학적 메시지는 **전쟁의 공포를 넘어선 평화의 염원**”이라고 말했다.

해당 도서는 *아마존에서 킨들과 양장본으로 구매 가능하다.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로 접속할 수 있다.*

<https://www.koreanwardiary.com>

옮긴이 김기봉, 버지니아주 비엔나 거주  
연락처: [kkim.aer@gmail.com](mailto:kkim.aer@gmail.com)

# 한국군 예비역과 한미동맹

김희석(Kim hui sok)



본인은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20여년간 한국 공군에서 근무했다. 현역으로 근무할 때 대위때 한번, 소령때 한번 총 두번에 걸쳐 한미연합사에서 근무했다. 이러한 연합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전역 후 주한미군 한국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현재 소속은 한국군 지원단(Korea Service Corps)이다. 현역으로 그리고 현재 민간인 신분으로 한미동맹을 위해 봉사할

수있다는 것이 나에게 큰 영광이다.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은 중요하다.

한국군 지원단은 1953년 한국전쟁 당시 조지 워커 중장의 요청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효하여 구성되었다. 당시 민간인 수송단 또는 민간인 노무단으로 불리었다. 이 조직은 전쟁 중에 미 육군을 지원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전장에서 포탄과 무기, 먹을 것 등 군수물품을 지게에 싣고 운반하였다. 그래서 이 부대는 일명 '지게 부대(A-Frame Army)'라고 불리었다. 건장한 한국 청년들이 전쟁 난리 틈에 소집되었고, 'A-Frame'에 미군의 군수물자를 짊어지고 운반했다. 내가 속해 있는 이 조직이야말로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조직인 것 같다.

한국군 지원단은 한국전쟁의 알려지지 않은 영웅들이다. 한국군 지원단은 주한 미군의 육군 구성군인 제8군 예하 제19원정 지원사령부, 주한 육군 물자 지원 사령부(MSC-K)에 예속된 지원부대이다. 주한 미군에 대한 전투 지원 및 전투 근무 지원을 맡고 있다. 평시에는 대한민국 민간인 2,000여 명으로 구성된 18개 중대가 편성되며, 전시에는 2만여명으로 증원된다.

통상, 학교에서 영어를 잘하고 어학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성실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인지 내가 보기에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한인 직원들은 성실하고 좋은 분들이다. 노조가 있고 본인은 수년 전에 주한미군의 '무급휴직'을 끝내고 복귀하고 나서 노조에 가입했다. 주한미군에 근무하면 영어 면접을 자주 보게 된다. 2016년에 주한미군에 입사할 때도 1차 서류면접 후, 마지막 관문은 영어면접이었다. 전역하고 나서 아내의 조언으로 여의도의 모 영어학원에서 영어를 집중하여 공부했다. 그 때 영어시험 점수가 50점 정도 올랐다. 그것이 주한미군에 입사하는 데 결정적이었다. 그리고 영어학원과 개인 수업을 통해 영어면접을 많이 준비했다.

주한미군 입사 후에도 다른 공식 직위로 옮기려고 수많은 영어면접을 보았다. 미국 병사들에게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직위에 지원할 때는, 영어로 한국문화에 대해서 시범 강의도 해 보았다. 면접이라는 것이 긴장되고 떨리는 것인데, 그것도 영어로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 하지만 이제 많은 시도를 하다

보니 영어면접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다. 물론 내가 우수한 고급영어를 구사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한국에서만 공부한 토종 영어이기에 영미권에서 살다 온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

주한미군의 첫 근무지는 동두천에 있는 캠프 케이시 주한미군 기지였다. 한국군 생활을 마치고 주한미군에서 새로운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을 시작한 나로서는 첫 근무지에서의 경험들이 값진 시간들이었다. 한국 군대라는 우물 안에서만 생활해 온 나에게 사회와 사람들에 대해서 가르쳐 준 시간들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한미동맹을 위해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상황에 대해, 그 실체와 개선점들에 대하여 늘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주한미군에 소속된 한 직원으로서 그 사항에 대해서 더 연구해보려고 한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나는 국내 최고의 야간행정대학원에 도전하여 진학하였다. 현재 한미동맹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학을 공부하고 있다. 장차 주한미군의 발전, 한미동맹과 더불어 북한 문제와 통일정책에 관해서도 공부하고 싶다.

한미동맹과 한반도 문제에 관한 연구와 글쓰기로 관련 분야에 기여하여 한미동맹에 기여하고 싶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에 꼭 필요한 핵심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통일이 오는 그날까지, 그리고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존재할 것을 확신한다.



# 제 82 공수사단, 1969



야전 훈련중 C-레이션 전투식량을 먹는 다니엘 맥팔린

## 대니얼 맥팔린(Daniel McPharlin)

1969년 1월 4일, 내가 속해 있던 호송 부대는 DMZ에서 6개월간의 근무를 마치고 제7보병사단의 본거지인 캠프 케이시로 복귀하였다. 우리는 한동안 부대의 일상적인 임무를 수행하다가 그해 3월 초 1주일간 시행된 ‘포커스 레티나’ 한미연합훈련에 참여하였다. 훈련기간 동안 제82공수사단의 병력 700명이 노스캐롤라이나 포트 블랙에서 8500마일을 이동한 후 서울 인근 지역에 공수강하를 시도하였는데, 당시 눈폭풍이 너무 심하여 강하는 예정보다 하루 늦어졌다.

당시 우리는 양모를 덧댄 올리브색 동계 훈련복, 모자 달린 야전상의, 동계 장갑 및 군화를 착용하고 있던 반면 제82공수사단의 인원들은 하계용 야전 외피만 입고 있던 것이 생각난다. 해질녘 우리는 82공수사단의 인원들이 체온 유지를 위하여 몇 개의 모닥불을 피우고 모여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 훈련중 우리는 지급받은 동계용 침낭을 바닥에 깔고 잠을 잤다.

다음날 아침 침낭을 열고 나와보니 간밤에 내가 숨쉬던 곳에는

얼음이 얼어 있었다. 공수강하가 이루어졌을 때 전투식량을 포함한 보급품도 함께 투하되었는데, 어쩌다 보니 보급품이 물속에 빠져 보급품을 지급받는데 지연이 발생하였다. 공수강하 다음날 아침 지급되기로 예정되어 있던 전투식량은 제때 오지 않았다. 대략 오전10시쯤 대형 커피 통을 싣고 온 지프 한 대가 온 덕에 우리는 최소한 아침 커피는 즐길 수 있었으나, 지프 운전자도 전투식량이 언제쯤 도착할지는 모른다고 했다. 해가 누엣달 때가 되어서야 M35트럭 한 대가 와서 물에 젖은 아침, 점심, 저녁 전투식량이 담긴 박스들을 던져주었고, 우리는 황급히 받은 것들을 먹었다.

제82공수사단 병력의 일부는 한국에서 6개월간 주둔하게 되는 바람에, 그들은 편지로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 의욕을 꺾으려는 무력시위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제7보병사단 31연대 1대대 본부중대 정찰 소대

# JUSMAG-K에서의 복무



## 정재성(Jae-sung Chung)

저는 주한미합동군사령부(JUSMAG-K)에서 근무한 바 있습니다. 1972년 7월, 육군 연락장교(중위)로서 대한민국 원주시에 위치한 캠프 룡의 한미합동군사령부 제1야전군사령부 군수지원팀에 배속되어 복무하였습니다.

FROKA LAT의 주요 임무는 정기적인 현장 방문 및 조사를 통하여 대한민국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및 예하부대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장 조사는 미군 영관급 장교들과 한국군 연락장교들로 구성된 군수팀들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미국이 지원한 군사 장비 및 보급품들과 연계한 작전 지침을 제공하고 운용 실태를 확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각 조사는 방문할 부대의 숫자에 따라 약 3일~5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JUSMAG-K 장교들은 본인들의 임무에 헌신하였고, 대한민국 국군의 현대화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저는 약 50년전 저와 함께 복무한 이들에게 경례를 표하고 싶습니다.

(링크: 페이스북 Jae-sung Chung 또는 [www.rokfv.com](http://www.rokfv.com))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본부에서 시행된 KF-21시험비행. 코리아헤럴드, 연합뉴스 제공

## KF-21 보라매: 중국과 북한의 새로운 위협에 대항하여 미국의 제공권 유지를 도울 성공 해법

제임스(제이) 디 나폴리 (James (Jay) Di Napoli)

대한민국이 새롭게 선보이는 KF-21 '보라매' 전투기는 지난 20년간 변형해 온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성공적인 발전을 보여준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KF-21이 미국이 자국의 노후화된 재래식 전투기 교체를 위해 구매를 강력히 고려해야 할 전투기라는 점이다.

KF-21 보라매는 가성비가 뛰어난 최신식 전투기의 전형이다. 예를 들어, 최근 캐나다는 F-35 스텔스 전투기 88대를 대당 약 8,500만 달러에 주문했다.<sup>1</sup> 이와 대조적으로, KF-21 보라매는 대한민국 공군(ROKAF)이 대당 약 6,000만 달러에 120대를 도입하기로 되어있는 만큼 생산이 보장되어 있다.<sup>2</sup> KF-21 보라매는 그 자체로는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지만 스텔스 전투기 개발과 생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높은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도 5세대 전투기의 기능을 많이 갖추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 5세대 전투기를 처음부터 개발하는 데서 내재하는 막대한 비용과 지루한 과정을 영리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sup>3</sup> 전투기 개발에 혁신적인 접근방식을 취한 덕분에 대한민국과 그 외 KF-21 보라매 전투기 사용국은 서방의 현 5세대 전투기 사용국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임무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과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은 KF-21을 개발하기 위해 협업했다.<sup>4</sup> 대한민국은 이스라엘 방위산업체 엘빗(Elbit)과 엘타(Elta)로부터

기술지원을 받기도 했다. 엘빗은 저고도 비행 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형 회피 및 지세 추적 경험을 제공하고, 엘타는 KF-21의 레이더 시스템 개발을 도왔다.<sup>5</sup> KF-21은 BAE 시스템스(BAE Systems)의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세계 최초 램제트 엔진으로 가동되는 대공 무기)을 장착하고 있다.<sup>6</sup> 또한 KF-21은 제너럴 다이내믹스(General Dynamics)가 제공하는 M61 20mm 개틀링 포도 장착하고 있다.<sup>7</sup> KF-21은 AIM-120 암람과 AIM-9X 사이드와인더와 같은 미국산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sup>8</sup> KF-21은 미국에 약 40년간 사용하여 노후화된 F-15, F-16과 F/A-18 전투기를 교체할 최상의 선택지이다. KF-21은 향후 중국 및 북한과의 분쟁에서 미국의 위상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미국은 KF-21 보라매를 F-15와 F-16 전투기를 대체하여 대공 방어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KF-21은 북미항공 우주방위사령부(NORAD)와 미군북부사령부(NORTHCOM)가 중국이나 러시아 항공기의 미 영공 급습 시 대응할 수 있는 항공기이다. 또한 KF-21을 도입하면 미국이 일본 오키나와의 카테나 기지에서 철수시키는 중인 노후화된 F-15 전투기를 영구히 교체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은 타격작전을 위한 F-35 전투기와 방공을 위한 KF-21 전투기를 함께 보유할 수 있게 되는데, 전문가에 따르면 F-35 전투기의 탁월한 스텔스 기능과 적의 대공 방어 레이더를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잘 활용할 수 있게 된다.<sup>9</sup> 이처럼 미국은 타격작전을 위한 F-35, 방공을 위한 F-22와 KF-21을 함께 보유해야 한다.



KF-21은 미 해군과 해병대에게도 엄청난 전투기가 될 것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022년 9월 KF-21의 함재기 버전인 KF-21N(네이비)을 공개하였다. 항공모함용 변형인 KF-21N에는 기체 아래에 제동 갈고리와 항공모함의 비행갑판 또는 격납고의 제한된 공간에도 더욱 관리가 용이하고 효율적인 탑재가 가능한 접이식 날개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다.<sup>10</sup> KF-21N은 제럴드 R 포드호(USS Gerald R. Ford) 같은 재래식 미 항공모함이나 아메리카호(USS America) 같은 수륙 양용 항공모함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조할 수도 있다. KF-21은 미 해군과 해병대의 F-35 스텔스 전투기를 훌륭하게 보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이든 정부와 미 의회는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를 구매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임해야 한다. KF-21은 미국이 대한민국과의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처음부터 준비된 양질의 최전방 전투기를 확보할 수 있는 쉽고 실용적인 방법일 것이다. KF-21은 현대 5세대 전투기에 종종 연관되는 개발 이슈 없이 미 전투기 조종사와 잘 융화될 첨단 기능을 갖추고 있다.

### 참고문헌

"KF-21 Gatling Gun System." General Dynamics, <https://www.gd-ots.com/armaments/aircraft-guns-gun-systems/kf-21/>. Accessed 22 May 2023.

"South Korea Fighter Jet KF-21 Boramae." Defensebridge, <https://defensebridge.com/article/south-korea-fighter-jet-kf-21-boramae.html>. Accessed 22 May 2023.

Dubois, Gaston. "KAI Bets Heavily on KF-21 Boramae, Whose Development Is Progressing at a Good Pace." Viaci Online, 27 Jan. 2022, <https://www.aviacionline.com/2022/01/kai-bets-heavily-on-kf-21-boramae-whose-development-is-progressing-at-a-good-pace/>. Accessed 22 May 2023.

Gilles, Rob. "Canada Finalizes Agreement to Buy 88 USF-35 Fighter Jets." Associated Press, 9 Jan. 2023, <https://apnews.com/article/politics-canada-government-lockheed-martin-corp-united-states-1e3986626bca3e4f03200e8742c66827#:~:text=The%20government%20has%20budgeted%20about, costs%20about%20US%2485%20million>. Accessed 22 May 2023.

Kadam, Tammay. "KF-21 Fires 'Rafale' Missile In New Tests; Expert Says South Korean Fighter Jet Optimized For Air-To-Air Missions." The Eurasian Times, 30 Mar. 2023, <https://eurasianimes.com/kf-21-fires-rafale-missiles-in-new-tests-expert-says-south-korean/>. Accessed 22 May 2023.

Lee, Daehan. "KAI Unveils KF-21N Carrier-Borne Aircraft At DX Korea 2022 Expo." Naval News, 23 Sept. 2022, <https://www.navalnews.com/naval-news/2022/09/kai-unveils-kf-21n-carrier-borne-aircraft-at-dx-korea-2022-expo/>. Accessed 22 May 2023.

Mizokami, Kyle. "South Korea Just Unveiled Its New Fighter Jet: It Looks Awfully Familiar." Popular Mechanics, 13 Apr. 2021, <https://www.popularmechanics.com/military/aviation/a36097972/south-korea-new-fighter-jet-kf-21-boramae-f-22-similarities/>. Accessed 22 May 2023.

Nedwick, Thomas. "South Korea's KF-21 Homegrown Advanced Fighter Just Took To The Air." The War Zone, 19 Jul. 2022, <https://www.thedrive.com/the-war-zone/south-koreas-kf-21-homegrown-advanced-fighter-just-took-to-the-air>.

kf-21-homegrown-advanced-fighter-just-took-to-the-air. Accessed 22 May 2023.

Nikolov, Boyko. "Seoul to Purchase 120 of Its Boramae Stealth Fighters by 2032." BulgarianMilitary.Com, 16 May 2023, <https://bulgarianmilitary.com/2023/05/16/seoul-to-purchase-120-of-its-boramae-stealth-fighters-by-2032/#:~:text=The%20KF%2D21%20will%20be,missile%20are%20currently%20under%20development>. Accessed 22 May 2023.

<sup>1</sup> Gilles, Rob. "Canada Finalizes Agreement to Buy 88 USF-35 Fighter Jets." Associated Press, 9 Jan. 2023, <https://apnews.com/article/politics-canada-government-lockheed-martin-corp-united-states-1e3986626bca3e4f03200e8742c66827#:~:text=The%20government%20has%20budgeted%20about, costs%20about%20US%2485%20million>. Accessed 22 May 2023.

<sup>2</sup> Dubois, Gaston. "KAI Bets Heavily on KF-21 Boramae, Whose Development Is Progressing at a Good Pace." Viaci Online, 27 Jan. 2022, <https://www.aviacionline.com/2022/01/kai-bets-heavily-on-kf-21-boramae-whose-development-is-progressing-at-a-good-pace/>. Accessed 22 May 2023.

<sup>3</sup> Nedwick, Thomas. "South Korea's KF-21 Homegrown Advanced Fighter Just Took To The Air." The War Zone, 19 Jul. 2022, <https://www.thedrive.com/the-war-zone/south-koreas-kf-21-homegrown-advanced-fighter-just-took-to-the-air>. Accessed 22 May 2023.

<sup>4</sup> "South Korea Fighter Jet KF-21 Boramae." Defensebridge, <https://defensebridge.com/article/south-korea-fighter-jet-kf-21-boramae.html>. Accessed 22 May 2023.

<sup>5</sup> Mizokami, Kyle. "South Korea Just Unveiled Its New Fighter Jet: It Looks Awfully Familiar." Popular Mechanics, 13 Apr. 2021, <https://www.popularmechanics.com/military/aviation/a36097972/south-korea-new-fighter-jet-kf-21-boramae-f-22-similarities/>. Accessed 22 May 2023.

<sup>6</sup> "South Korea Fighter Jet KF-21 Boramae." Defensebridge, <https://defensebridge.com/article/south-korea-fighter-jet-kf-21-boramae.html>. Accessed 22 May 2023.

<sup>7</sup> "KF-21 Gatling Gun System." General Dynamics, <https://www.gd-ots.com/armaments/aircraft-guns-gun-systems/kf-21/>. Accessed 22 May 2023.

<sup>8</sup> Nikolov, Boyko. "Seoul to Purchase 120 of Its Boramae Stealth Fighters by 2032." BulgarianMilitary.Com, 16 May 2023, <https://bulgarianmilitary.com/2023/05/16/seoul-to-purchase-120-of-its-boramae-stealth-fighters-by-2032/#:~:text=The%20KF%2D21%20will%20be,missile%20are%20currently%20under%20development>. Accessed 22 May 2023.

<sup>9</sup> Kadam, Tammay. "KF-21 Fires 'Rafale' Missile In New Tests; Expert Says South Korean Fighter Jet Optimized For Air-To-Air Missions." The Eurasian Times, 30 Mar. 2023, <https://eurasianimes.com/kf-21-fires-rafale-missiles-in-new-tests-expert-says-south-korean/>. Accessed 22 May 2023.

<sup>10</sup> Lee, Daehan. "KAI Unveils KF-21N Carrier-Borne Aircraft At DX Korea 2022 Expo." Naval News, 23 Sept. 2022, <https://www.navalnews.com/naval-news/2022/09/kai-unveils-kf-21n-carrier-borne-aircraft-at-dx-korea-2022-expo/>. Accessed 22 May 2023.

# 바그너 그룹과 북한의 무기 판매



## 로렌 데이빗슨 (Lauren Davidson)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이따금씩 러시아에 우호적인 국가들이 러시아와 얼마나 관계를 맺을지에 대한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 몇 주 동안 북한이 러시아 정부와 연합되어 있는 민간 군사 기업인 바그너 그룹 (Wagner Group)에 로켓과 미사일을 공급해왔다는 미확정 보도가 나왔다. 바그너 그룹의 대원은 군인이기보다는 용병에 더 가까우며 현재 50,000명의 대원들이 우크라이나에 있다고 추정된다. 미 백악관 국가 안보회의 대변인인 존 키비 (John Kirby)에 따르면, 이들 중 40,000명이 범죄자다. 러시아는 2022년 11월 중국이 새로운 대북 정책에 반대하는 데 동참하면서 북한을 전쟁 중 지원책으로 설정한 것처럼 보인다. 북한이 러시아를 돕고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관련 국가들 사이에 엄청난 위협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북한은 계속 러시아에 관여하는 한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공급할 것이다. 키비 대변인이 이를 처음으로 미국 언론에 밝혔고, 북한이 개입할지 모른다는 가능성이 전세계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려하는 점이다.

바그너 그룹을 설립한 예브게니 프리고진 (Yevgeny Prigozhin)은 러시아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푸틴 (Vladimir Putin)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프리고진은 군사 및 정부 기관과의 급식 계약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며 '푸틴의 요리사'라는 별칭을 얻었다. 바그너 그룹의 용병은 우크라이나의 도시인 바흐무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투 상황에 투입되고 있으며, 최근 몇 주 만에 약 1,000명의 대원이 전사하였다. 바이든 정부는 상무부를 통해 바그너 그룹을 '군사 최종 사용자 (Military end user, MEU)'로 지정하며

미국을 기반으로 하거나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기술이나 장비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키비 대변인은 이 군사 최종 사용자로의 지정은 러시아 경제에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유엔 결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략 이전과 후에 모두 승인된 것으로 북한의 군사적 지원은 그 어떤 것이라도 유엔 결의에 어긋난다. 탱크, 대포 그리고 미사일과 같은 '중무기'의 어떠한 운송이든 2006년에 통과된 대북제재결의의 1718호를 직접적으로 위반한다. 이 결의는 북한의 무기 이동을 금지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무기 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2022년의 마지막 주, 평양이 러시아 정부에 은밀하게 포탄을 공급하고 있었다는 것이 발견되었고 북한은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통해 이를 이동시키며 이 포탄의 도착지를 불분명하게 하려고 하였다. 2022년 12월 백악관은 바그너 그룹에 무기가 공급되었던 바 있었으며 무기에 대한 비용이 지급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현재 공급되었다고 대중에게 알려진 장비들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전쟁지의 역학구도에 영향을 줄 만한 것이 있는지는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추가적인 무기 공급을 우려하고 있다.

백악관 발표 이후, 영국 외무장관 제임스 클레버리 (James Cleverly)는 바그너 그룹에 북한이 무기를 공급했다고 주장하는 미국을 지지했다. 더불어 이는 침공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러시아가 계속해서 북한으로 눈을 돌릴 정도로 우크라이나 침공이 절실할 가능성도



시사하였다. 북한과 러시아는 소련 연방 붕괴 이래로 항상 좋은 외교 관계를 맺어왔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침략이 바라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자 러시아는 동맹국과 우방국에게 점차 의존하게 된 것이다. 북한 정부는 서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활용하였으며 이 두 국가는 차례로 핵 실험에 대한 유엔 제재를 지지해왔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가담할 것 같다는 의견은 완전히 새로운 생각은 아니다. 이는 이미 2022년 여름에 한차례 언급되었던 의견이다. 지난 7월, 북한은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동부에 위치한 돈바스의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지역의 ‘분리주의 운동’을 외교적으로 인식함에 따라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지지를 표하였다. 러시아 언론은 북한 군부대가 포병전에 대응하는 고도의 훈련을 해왔으며 우크라이나에 미군 포병이 주둔한 만큼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북한 군인 파견에 대한 보답으로 에너지와 곡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또한 북한에게 원유와 정제된 석유를 무한대로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결의 2397호에 위배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결의에 어긋나는 것이 완전히 증명된다면, 러시아를 비롯해 연관된 다른 국가들의 단체를 상대로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북한을 상대로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무역을 규제한 11가지 결의들을 도입하는 것에 우호적으로 투표하였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협력은 흥미를 끈다.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개입은 침공 전에 러시아의 석유를 상당한 양으로 사용하던 대한민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한때는 북한을 거쳐 러시아 석유관을 설치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현재는 논의가 없다. 대한민국은 러시아가 민간인을 타격하는 드론 사용에 착수한 이상, 러시아의 전략을 반영할 수 있는 북한의 계약에 대응하는 태세를 재평가해야 할지도 모른다. 현재 북한이 러시아 어느지역에도 파병을 계획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남한이 크게 걱정해야 할 것은 없다. 현재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와 협업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바그너 그룹과의 거래는 북한 정부가 결정할 영역이다. 이전 정부는 러시아 침공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부족하였기에 대한민국 국민은 점차적으로 전쟁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현재 어떻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이 끝날지는 불분명하다. 북한과 바그너 그룹의 연관은 러시아 용병들이 무기를 다수 보유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전쟁을 끝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말해, 푸틴 대통령과 프리고진의 정치적 연대가 강력하므로 와그너 그룹과 협업하는 것은 러시아 정부와 협업하는 것과 같다.

## 참고문헌

<https://www.nbcnews.com/news/world/north-korea-missiles-russian-mercenary-wagner-ukraine-rcna63002>

<https://breakingdefense.com/2022/12/north-korea-providing-arms-to-russias-wagner-group-for-ukraine-fight-white-house/>

<https://www.heritage.org/asia/commentary/north-koreas-support-russian-occupied-ukraine-would-violate-un-sanctions>

<https://www.reuters.com/world/russia-north-korea-forge-closer-ties-amid-shared-isolation-2022-11-04/>  
<https://keia.org/the-peninsula/2022-in-review-the-impact-of-russias-invasion-of-ukraine-on-south-korea/>

<https://www.brookings.edu/blog/order-from-chaos/2022/05/09/how-will-south-koreas-new-president-approach-russias-ukraine-invasion/>

# 한강의 기적



1970년대 강남과 현재의 강남

## 에이라 로젠히슬롭(Ara Rosenhyslop)

대한민국이 현대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제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항복하면서 2차 대전의 끝 무렵 미국과 소련이 38선을 기준으로 한국을 나누기로 합의한 이후였다. 몇 년 후, 한국은 내전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분할되며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 1961년,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고 정치 및 경제 개혁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로 인해 한국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경제적 개발이 급속하게 진행되어, 수십 년 만에 최빈국 가운데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 가운데 하나로 발전하게 되었다. '한강의 기적'은 한국의 경제발전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단어로 알려졌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의 신속한 경제 회복을 보여주는 '라인강의 기적'과 유사하다.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 미국은 아시아의 주도권을 유지하고 싶어했으며 자유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ROK)을 지속적으로 지원했다. 이 냉전 시기 동안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외국 원조를 받았으며, 미8군의 영구 주둔지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약 10년 동안 계속되었지만, 공산주의에 강하게 반대하는 것만으로는 미국의 지원을 보장할 수 없었으며,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을 돕겠다는 약속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새로운 군부는 미국의 군사적 및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고자, 한국군을 베트남으로 파견해서 미국을 돕기로 결정했다. 이 전략의 성공으로 인해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이 이어지고 두 나라 간 동맹에 대한 약속이 강화되었다.

앞서 말한 대로, '한강의 기적'은 한국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경제적 성장의 시기였다. 1960년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40억 달러로 안정적으로 시작하여, 1980년에는 1조 7000억 달러 이상으로 상승했으며,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거시경제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이 시기의 꾸준하고 상당한 성장으로 30년간의 경제발전을 이뤄낼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국내총생산이 가장 높은 국가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농촌 위주였던 경제는 강력하게 산업화되었다. 이 시대는 경제적 발전으로 칭송되었지만, 동시에 엄격한 정치적인 억압과 권위주의적 통치의 시기이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논란이 되는 유산을 남겼다.

1961년에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당시 일시적으로 존재했던 민주 정부를 군사 독재 정권으로 대체해 놓았다. 이 쿠데타를 주도한 인물은 장군이자 이후 대통령이 된 박정희였다. 박정희 행정부의 경제 정부주도식의 인프라 개발과 중공업 지원에 초점을 두었다. 사회 기반 시설의 목표는 시골 지역에 물, 에너지 및 포장도로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중공업에 투자함으로써 산업 성장, 현대화 및 도시 개발에 탄탄한 기반이 생겼으며, 많은 시골 주민들을 큰 도시로 이주하도록 이끌었다. 이러한 노력들은 1962년에서 1996년까지 5년간의 연이은 계획으로 나누어졌으며, 주요 지원인 미국의 외국 원조와 군사 지출로 자금을 지원받았다.



미국이 한국에 돈을 지원하는 세 가지 주요 경로는 외국원조, 안보 보조금 및 베트남 전쟁 중 한국군들이 받았던 월급이었다. 외국원조와 미군 지원금에서 절약된 돈은 정부의 경제 계획에 투자되었다. 한국 군인들과 근로자들이 베트남에서 받은 돈은 미국에서 지불했으며, 전쟁이 종료될 때까지 이 금액은 3억 5천만 달러 또는 규모가 줄어든 시기에는 국내총생산의 3.5% 정도 되었다. 이로써 소비 지출이 급증하고 자본이 널리 분산되었는데, 이 자본은 1970 년대에 많은 소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다.

정부주도식의 투자와 소비자 지출이 조합되어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어냈다. 아시아개발은행 연구소에 따르면, “1960 년대에 평균 국내총생산율은 7.5% 상승했으며, 1970 년대에는 8.6%, 1980 년대에는 9.3%로 증가했다.” 이는 일반적인 강력한 경제 성장으로 생각되는 것보다 훨씬 높다. 미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가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3%로 목표로 삼는 가운데, 한국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로 떠올랐으며,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는 영구적으로 변화하였다. 산업화와 인프라 발전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이로써 경제가 장기적으로 급격히 성장하게 되었다. 이 성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1980년대에 등장했던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으로 대한민국에 높은 기술 기업들과 현대적인 도시가 표준이 됐다.

이 시기 정치적 결과와 박정희 대통령의 유산에 대한 논쟁은 이 시대에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었다.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정부는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헌신했다. 엄밀히 말하면 박 대통령 시대에는 선거가 있었지만, 정부의 권위주의적 억압, 새로운 유신 헌법의 시행 및 엄격한 정책들로 인해 그의 대통령직은 1979 년 암살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보장되었다. 뜻밖에도, 박 정부의 주요 지원은 대부분 시골에서 나왔고 도시에서는 반대하였다. 처음에는 이것이 정부에 유리했지만, 이 기간 동안 시행된 경제 정책으로 인해 도시화가 가속화되자 정부 지지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박정희의 암살은 1979 년에 있었으나 군사 지배는 거기서 바로 끝나지 않았다. 1980 년대 중반에 이르러 경제적 확장 및 사설 산업의 정치적 권력이 정치적 자유화와 민주화를 이끄는 결과로 이어졌다. 1987년 제6공화국이 시작하면서 진정한 민주주의 개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은 경제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었고, 이로 인해 전통적으로 강력했던 군대의 힘이 사설 산업, 조직 노동력 및 성장하는 중산층의 결합으로 인해 동등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 구성원들은 주로 성장과 산업화가 집중된 도시들에서 주로 힘썼다.

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또 다른 영구적인 유산으로는 경제의 민영화 및 재벌의 부상이 있다. 재벌은 한국에서 개인 또는 가족이 소유하고 전체 산업계를 통합한 기업이다. 이 기업 중에는 미국에서 잘 알려진 현대, LG, 삼성이 포함되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발달된 국내 소비 시장이 없었고,

경제는 주로 미국과 일본의 부유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것에 주력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미국인들은 한국 브랜드에 익숙하다. 이러한 기업들은 주로 수출 산업을 통해 상당한 이익과 경제적 혜택을 가져왔다. 안타깝게도, 이로 인하여 소규모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러한 추세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시기가 한미 동맹에 영향을 남겼다. 두 나라의 경제적 결속과 계속되는 군사 협력이 양국의 동맹을 더욱 강화시켰다. 1960 년대 초반에는 미국이 한국에 개입을 줄이려고 고려했고 있었지만, 1970 년대 말에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로 발전하면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미국은 쉽게 한국을 포기하지 않게 되었다. '한강의 기적'은 대체로 박정희 정부가 시행한 정책의 결과로 인정받고 있지만 그의 정부가 실행한 전략들은 오래도록 논란거리가 되었으며, 다수의 한국 국민들이 혜택과 비용에 대해 아직까지도 토론하고 있다. 최근 몇 십 년간 경제 성장이 둔화되었지만, 현대 한국의 경제 수준은 1960년대에 뿌리를 두었으며 결과적으로 거시경제적 흐름을 따라 세계 10위권 안에 속하거나 근접한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 참고문헌

- Al-Shamsi, M. A. (2022). Review of Korean imitation and innovation in the last 60 years. *Sustainability*, 14(6), 1 – 15. <https://doi.org/10.3390/su14063396>
- Choi, Y. H. (2011). Sou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Evolving Role of the Government: Energy and Water.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25(1), 115 – 136. <http://www.jstor.org/stable/23258227>
- Kim, S. J. (1970). South Korea's involvement in Vietnam and its economic and political impact. *Asian Survey*, 10(6), 519 – 532. <https://doi.org/10.2307/2642884>
- Lee, J.-W. (2016). The Republic of Korea's Economic Growth and Catch-Up: Implications for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571). <https://doi.org/10.2139/ssrn.2779486>
- South Korea GDP 1960-2023. *MacroTrends*. (n.d.). Retrieved January 27, 2023, from <https://www.macrotrends.net/countries/KOR/south-korea/gdp-gross-domestic-product>

#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방어



홍수진(Sujin Hong)

## 핵무기 보유에 관한 북한과 남한의 시각.

NPT 또는 핵확산금지조약은 상호 협약으로서, 이 협약에 서명한 당사국 중 수십 개국이 핵무기 및 핵기술의 확산을 막고 핵에너지에 관한 평화로운 협력을 증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북한은 1985년 이 조약에 서명하였고 2003년 1월 탈퇴를 선언하였는데, 이는 유일한 탈퇴 사례이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거나 보유하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핵무기 프로젝트에 관한 북한의 반응을 고려할 때,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것이라고 언급했다.<sup>1</sup> 이 인터뷰는 세계 경제 포럼이 열렸던 스위스에서 2023년 1월 20일에 진행되었는데, 이를 통해 한국과 북한은 핵무기에

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맞설 것이며, 한국과 미국 간 공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 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할 것임을 공표했다.<sup>2</sup>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하는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해 질 것이며 안보, 경제, 기술, 인적 교류 등 모든 영역에서 강화될 것이다.<sup>3</sup>

## 한국의 목표인 비핵화.

2023년에 외교부가 발표한 신년 업무 보고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 사회와 공조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겨 있다.<sup>4</sup>



남북 간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핵무기의 가용성 여부이다. 핵무기를 계속해서 개발하려면 많은 비용이 드는데, 북한이 불법적인 사이버 행위를 통해 핵 및 미사일 자금을 모은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sup>5</sup> 한국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 차단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sup>6</sup> 북한은 금융 기관, 가상 화폐 회사 및 가상 화폐 거래소를 목표로 삼아 가상 자산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 이 사이버 공격을 막으려면 국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데, 북한은 세계 곳곳에서 사이버 공격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 보안이 취약한 개도국이 주요 공격 대상이기 때문이다.

### 한국 외교부, 불법적 사이버 활동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다.

2022년 11월 미국과 한국은 서울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참여하여 정부와 민간 부문 이해관계자들이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방어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sup>7</sup> 참가자들은 북한이 감행한 암호화폐 거래소 공격 및 모범적인 대응에 관한 예시를 공유했다. 뿐만 아니라 공공 및 민간 부문이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16개국의 200명이 넘는 정부 관계자들과 암호화폐 거래소 직원, 블록체인 기업이 참여한 이 심포지엄에서는 북한의 불법적 사이버 활동, 공격 방법, 북한이 자주 사용하는 악성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었다.<sup>8</sup>

“북한의 불법적 사이버 활동은 단순히 사이버 공간 내 금융 범죄로 인식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태우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말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은 국제 사회 내 평화와 안정성과도 직결됩니다.”<sup>9</sup>

###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관한 나의 견해.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에서 발생하는 테러의 형태 및 다양성을 보여준다. 김정일 시대에 북한의 정치적 목표는 강력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었다. 즉, 북한은 군사력 강화라는 국가적 목표 아래 경제적 성공을 기반으로 2세대에 걸쳐 세습되는 사회주의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정치적 통제를 강행하며 추후 북한의 주도 하에 한반도를 통일하고자 했다. 그러나 계속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그 실현 가능성은 계속해서 줄어들었고, 체제는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거대한 경제적 자본이나 첨단 기술이라는 제약 없이 엄청난 전략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힘을 기르려는 이유일 수 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북한의 공격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문제를 더욱 주의 깊게 다뤄야 하는 이유는 북한은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의 안정성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 보안의 핵심은 국제적 규모의 협력이며, 이는 군사 동맹을 넘어 사이버 동맹으로까지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합리적인 방어 대책을 준비하는 것이 우선이다.

### 참고문헌

Hwan-Young, Kim. “ President Yoon 'Respecting NPT is realistic … Strengthening Japanese security is not a big problem” . Voakorea, 20 Jan. 2023, <https://www.voakorea.com/a/6926567.html>

“Minister, joint briefing after the annual report.”,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ttps://www.mofa.go.kr/www/brd/m\\_4078/view.do?seq=368505](https://www.mofa.go.kr/www/brd/m_4078/view.do?seq=368505)

“North Korea raises funds to fire 31 missiles with just one hacking.”. BBC Korea, 18 Nov. 2022, <https://www.bbc.com/korean/news-63633588>

<sup>1</sup> <https://www.voakorea.com/a/6926567.html>

<sup>2</sup> [https://www.mofa.go.kr/www/brd/m\\_4078/view.do?seq=368505](https://www.mofa.go.kr/www/brd/m_4078/view.do?seq=368505)

<sup>3</sup> [https://www.mofa.go.kr/www/brd/m\\_4078/view.do?seq=368505](https://www.mofa.go.kr/www/brd/m_4078/view.do?seq=368505)

<sup>4</sup>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10601>

<sup>5</sup> <https://www.bbc.com/korean/news-63633588>

<sup>6</sup> <https://www.bbc.com/korean/news-63633588>

<sup>7</sup> [https://www.mofa.go.kr/www/brd/m\\_4078/view.do?seq=368505](https://www.mofa.go.kr/www/brd/m_4078/view.do?seq=368505)

<sup>8</sup> <https://www.bbc.com/korean/news-63633588>

<sup>9</sup> <https://www.bbc.com/korean/news-63633588>



## 한국에 복무하는 초급 장병들의 관계 형성 돕기



### 맷 더키 MAMP(Matt Durkee MAMP)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파견되었을 때의 심정은 어떠할까? 한국과의 문화적 연관성을 전혀 혹은 거의 못 느끼는 대부분의 초급 장병들에게 한국으로의 파견 경험은 공포스러울 수 있고, 심지어 사회적 고립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다수 지휘관들의 핵심 목표는 초급 장병들이 이러한 사회적 고립감을 극복하고 한국에서의 시간을 값지게 보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병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며 고립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연결망을 형성해야 한다. Park, Chiriboga & Chung (2022)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생존, 안전 및 심리적 안녕을 지켜주는 안전 우산으로서의 사회연결망을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때 한국에 파견된 초급 장병들을 위한 사회적 망 또는 일반적 의미의 사회적 망이란, Park 외(2022)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가족, 친구 및 사회와 다양한 연결 관계를 형성하고 해당 문화에 대하여 그릇된 편견을 갖지 않음으로써 만들어진다. 대다수의 초급 장병들은 한국에 파견되었을 때 가족과 떨어지게 되어 적절한

감정적 및 심리적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는데, 이는 장병들이 고립감을 느끼고 나아가 한국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한 악감정을 형성하는 것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지휘관들은 어떻게 장병들이 고립감을 극복하고, 회복탄력성을 기르고, 심지어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할 수 있을까? 하단에 이를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가 기술되어 있으며, 일부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 이미 한국에 파견되어 있는 장병들과 연결해주는 멘토 프로그램 진행하기.
- 장병들이 한국에 처음 도착한 2주 간 한국과 주변 지역을 직접 보여주며 한국사람들과 문화에 대하여 가르쳐주기.
- 음식은 타 문화의 관문이므로 갖 도착한 초급 장병들에게 주민들이 한국의 음식을 소개해 주고 한국 음식을 요리하는



법을 가르치며 한국 문화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하기

- 한인 가족과 월 1회의 멘토 프로그램 진행하기 혹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KATUSA 및 한국 군인들이 초급 장병들과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기. 이때 한국 및 미국의 명절을 좋은 계기로 활용하기

이러한 4가지 단계는 Lee J (2019)가 언급한 동맹 화합력을 배양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면모가 여럿 존재함에도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동맹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게끔 하는 능력을 기름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방법이 적용될 때, 초급 장병들은 혼자라는 공포스러운 느낌을 떨쳐내고 고립감에 대한 내성을 기르는 첫발을 뗄 수 있을 것이다.

함께한다는 인식과 타 문화에 대한 상호존중이 있는 공동체를 형성한다면 초급 장병들은 더불어 성장하고, 고립감을 타파하며, 타 문화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인식을 넘어서게 하는 진정한 관계 형성의 기술을 터득할 것이다.

한국 문화에는 ‘한’이라 불리는 것이 있는데, 이는 Boman (2020)의 정의에 따르면 ‘비대칭적 힘의 관계 혹은 고통을 올바르게 해결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원한 및 슬픔’을 뜻한다. 그렇지만, 미국 및 한국 초급 장병들이 느낄 수 있는 고립감과 ‘한’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통성을 확인하며 줄일 수 있다. 내가 한국에 복무하며 느꼈던 점을 토대로 쓴 상기 글이 초급 장병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맷 더키 MAMP(Matt Durkee MAMP)  
공동체 상담 및 외상학 연구 박사 후보  
미육군 예비역

### 참고문헌

Boman, B. (2020). From Old Boy to Burning: Han in South Korean films. *Culture & Psychology, 26*(4), 919-932. <https://doi.org/10.1177/1354067X20922146>

Lee, J. J. (2019). "treating allies with respect: U.S.-ROK Alliance and the second Korean nuclear crisis, 2002-2006". *The Journal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26*:2019;(2), 165-205. <https://doi.org/10.1163/18765610-02602004>

Park, N. S., Jang, Y., Chiriboga, D. A., & Chung, S. (2022). The relations of social network types with mental distress among older Korean Americans: The interactive role of living arrangement. *Research on Aging, 44*(2), 111-122. <https://doi.org/10.1177/0164027521999780>

# 한국 식민지 시대의 한 독창적인 삶



**A.D. 트림블(A. D. Trimble)**

(2022년, 자비 출판, 아마존 킨들에서 구매 가능)

고수선 여사의 손녀인 내 아내는 1989년, 할머니께서 제주도에서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부고 소식을 계기로 나는 이 흥미로운 여성을 알게 되었다. 고수선 여사는 항일운동가로 활동했고, 이후에는 대한민국 1세대 여성

의사가 되신 분이다. 대단히 흥미로운 인생을 사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898년 가파도의 작은 어촌에서 태어난 고수선 여사는 지능과 호기심이 남달랐다. 동네 남자아이들이 다니던 학교 창문 틈으로 한자를 깨우쳤는데, 그때 나이가 고작 여섯 살이었던 것이다. 학교에 다니고, 또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누구보다도



간절했지만 당시 한국은 유교 사회였으므로 여자라면 응당 현모양처가 되어야 했다. 여사가 품고 있던 꿈에 조금이나마 다가갈 기회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있었을 것이다.

당시 일본 제국은 대한제국을 집어삼킬 기회만 오랫동안 엿보고 있었다. 중국에 직접 진출하기 위한 발판으로 쓰기 위함이었다. 1800년대 후반, 대한제국에 목줄을 채우고자 했던 일본의 야욕에 맹렬히 맞서던 명성황후는 일본 대사의 흉계로 1895년에 암살당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대한제국을 완전히 지배하기 시작했다. 일본 제국군이 이미 국정의 많은 부분에 관여하고 있던 상황에서, 대한제국에 대한 공식적인 병탄이 1910년 이루어졌다.

새로운 식민지 국민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느꼈던 일본은 조선인을 일본 사회에 동화시키기로 작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조선인 어린이들을 충실한 일본인의 신하로 세뇌하고 길들일 수 있는 교육 정책을 개발했다. 여기에는 어린 여자아이들을 교육하는 것도 포함이었다. 일본이 이와 같은 교육 정책을 완전히 도입하기 전에, 고수선 여사는 어린 시절 제주도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참된 한국사를 배웠고 열렬한 애국자가 되었다. 학업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올린 여사는 서울에서 상급학교에 진학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국 문화를 지우고 거짓 역사를 덮어씌우려는 일제의 정책을 맞닥뜨리게 되었다. 여러 일본인 선생과 행정실 직원에게 거침없이 맞선 결과, 고수선 여사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문제가 되었다.

1917년, 고수선 여사는 조선의 압제자를 없애는 데 일조하기 위해 막 움트기 시작한 일제 저항 운동에 가담했다. 여자대학교란 여자대학교는 다 돌면서 여학생으로 구성된 비밀 항일 조직을 세웠다. 여러 항일 운동 지도자가 1919년 3월 1일에 일본으로부터의 대한 독립 선언을 외치며 평화롭게 가두 행진을 계획했던 참이었다. 여사가 다니던 학교 측에서는 이를 알고 조선인 학생들을 가둬 두었지만, 여러 학생이 독립 선언을 공개적으로 낭독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 기숙사 문을 부수고 달려 나갔다. 그 후, 젊은 조선인 여학생들은 서울 전역에서 일어난 대규모 평화 행진에 참여했다. 그 평화 행진에 일제는 수천 명을 그 자리에서 학살하고, 체포하여 고문한 후, 더 많은 조선인을 투옥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대학을 졸업한 고수선 여사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지만, 남들 눈을 피하여 상하이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위한 자금을 조달했다. 이는 일제 치하에서 명백한 위법 행위였다. 항일 자금을 모으는 자는 누구든 감옥에 갇혔고 자칫하면 사형이었다. 이 사실이 들키자, 여사는 임시 정부를 위한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실은 채 작은 낚시배를 타고 상해로 도망쳤다. 하지만 중국에서도 일본은 여사를 지명수배자로 몰아 쫓아다녔다. 목숨이 위협당하자 임시정부는 그를 도쿄로 보냈고, 거기서 도쿄 여자 의학 전문학교에 다니면서 조선인 학생 주도 독립 운동을 도우라고 지시했다.

1923년 일본에서는 관동 대지진으로 14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하고 20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화염에 휩싸인 도쿄에서 고수선 여사는 조선인을 찾아 죽이려는 무리를 피해 맨발로 도망쳐 다녔다. 6천 명에 가까운 재일조선인이 살해당했다. 길고도 참혹한 여정에서 살아남은 여사는 마침내 조선으로 돌아왔다. 탈진, 영양 결핍, 그 모든 공포와 끔찍한 경험으로 인한 극심한 우울함이 그와 함께한 상태였다. 서울 소재의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 일본은 기어이 여사를 체포하여서, 한 달이 넘도록 잔인하게 고문했다. 이후에 풀려나긴 했으나 고문으로 인해 영구적인 상해를 안게 되었다.

힘든 상황에서도 여사는 의학 공부를 끝마치기로 했다. 경성 의학 전문학교는 여사가 여성이라는 이유 외에도, 최근까지 일본 정부로부터 억류당했던 지명수배자였다는 이유를 들어 입학할 거부했다. 하지만 여사가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학교 행정부를 설득한 결과, 학교는 그를 받아줘야만 했다.

여사는 여성 의학도라는 이유로 다른 남학생과 교류할 수 없었고 교수진으로부터는 무시를 당했다. 그는 그런 대우를 거부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겠노라 요구하면서 본인의 지적 능력과 의학 지식 및 실력을 보여줄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노력 끝에, 교수진은 물론 학우들까지도 그를 받아들였다. 고수선 여사는 1926년에 졸업했다. 당시 여성 의사가 배출된 것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일이었고 제주도 출신으로는 최초였다.

제주도로 돌아온 여사는 자신을 가르친 첫 번째 학교 선생님이자 의사인 남편과 결혼하여, 부부가 함께 무료 진료소를 운영했다. 두 사람은 2차 세계 대전으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했던 조선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고군분투했고 한국 전쟁이라는 역경과 어려움에서도 살아남았다.

고수선 여사는 노년에 들어서 제주도 여성, 아동, 고아, 노인의 권리를 활발히 주장했다. 자택에서 여러 학교와 고아원을 운영했고 탁아소를 설립했으며 노인을 돌봤다. 그는 1989년 8월 11일 사망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제주도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나섰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에 고수선 여사를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했고 2005년에는 여사와 부군 김태민 선생의 유해를 대전 현충원 묘지에 안장했다.

저자는 음악 이론 및 작곡 학사 학위와 아시아 연구학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미 공군 장교로서 필리핀 주둔 제13 공군, 한미연합사령부에서 해외 복무한 경험이 있으며, 이후 유엔 사령부/군사정전위원회에서 근무했다. 군에서 근무할 당시 저자의 마지막 보직은 미 국방정보부 한국 지국장이었으며 이후 중령으로 전역했다. 이후 계속해서 미국 연방 정부에서 근무했고, 2018년 은퇴하기 전까지 아시아와 카리브 지역 순환 근무를 여러 차례 완수했다.



주한미군전우회에 기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주한미군전우회의 사명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https://kdva.vet/donations/>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14689, Lee Highway #266, Gainesville VA 20156, USA  
 contact@kdva.vet  
 www.kdva.vet

